



KOCHAM ECONOMIC REPORT

제 2013-39 호

2013년 9월 24일(화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7월중 주택가격 7년 만에 최고치 기록
- 2) 9월중 소비자 신뢰지수 전망치 소폭 하회
- 3) 연준(FRB)은행장들, 내달 양적완화 축소 불가 입장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중국,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페이스북, NYT 접속 허용
- 2) 유럽중앙은행(ECB), 추가 유동성 공급 가능성 시사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미 기업들, '리쇼어링' 현상 가속화
- 2) 미국 의류산업 부활 조짐
- 3) 무디스, GM 신용등급 상향조정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7월중 주택가격 7년 만에 최고치 경신

- 지난 9월24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 통신은 7월중 S&P 케이스 실러 지수가 전년대비 12.4%가 상승했다고 보도
 - 이는 시장 전망치와 부합하는 결과로 지난 2006년 2월 이후 최고 수준
- 전문가들은 최근 모기지 금리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매매 활동이 활발해지고는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은 구매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
 -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년래 가장 높은 만큼 올해 안으로 부동산 시장은 냉각될 수 있다는 분석
- 한편, 같은 날 발표된 미연방주택금융청(FHFA)의 7월중 주택가격지수도 전월대비 1% 상승, 전월 증가율 0.7% 보다 상승폭이 확대된바 있음

2) 9월중 소비자 신뢰지수 전망치 소폭 하회

- 지난 9월24일(현지시간) 컨퍼런스보드는 9월중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79.7을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지만, 지난 달 확정치인 81.8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난 5월 이후 6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
-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를 기록함에 따라 향후 경기와 소비경기 개선세가 기대에 다소 못 미칠 것 이라는 전망

3) 연준(FRB)은행장들, 내달 양적완화 축소 불가 입장

- 지난 9월23일(현지시간)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(FRB)은행장은 양적완화를 축소하기에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며, 지난 5월 이후 시행된 증세와 재정 감축 등이 경기 회생 속도를 더디게 했다고 지적
-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준(FRB)은행장도 10월중 출구 전략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
 -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표가 부진하며, 고용시장 개선 지표가 둔화됐다고 지적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중국,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페이스북, NYT 접속 허용

- 지난 9월24일(현지시간)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(SCMP)는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성할 예정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페이스북 등 그동안 접속을 막았던 사이트들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
 - SCMP는 익명의 한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, 외국 기업들과 외국인들이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없거나 뉴욕타임스를 읽을 수 없다면 자유무역지대가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부분에서 특별한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
- 한편, 중국은 지난 2009년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유혈충돌 시위 후 위구르계 반체제 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남기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을 차단한바 있음
- 또한 지난해 말 당시 총리였던 원자바오 일가의 축재 의혹을 보도한 NYT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도 막은바 있음

2) 유럽중앙은행(ECB), 추가 유동성 공급 가능성 시사

- 지난 9월23일(현지시간) 드라기 ECB 총재가 유럽의회에 출석, 현재 유럽이 보이는 미약한 회복세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, 유럽 은행권의 유동성 보강을 위해 필요하면 3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(LTRO)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
 - 드라기 총재는 유럽내 금융시장이 회복되면서 역내 은행들이 3300억 유로 가량을 조기 상환, 조기 상환은 금융기관들이 ECB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자금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“좋은 신호“라고 평가
- 한편, 그는 최근의 경기 지표로 볼 때 현 3/4분기에도 유럽의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이전보다 둔화했다면서 따라서 필요하면 부양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미 기업들, '리쇼어링' 현상 가속화

- 지난 9월24일(현지시간) FT는 낮은 생산 비용을 이유로 중국에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'리쇼어링'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
 - 미국의 장난감 제조업체인 케이넥스(K' Nex), 친환경 포장재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트렐리스 얼스 프로덕트(Trellis Earth Products), 속옷 제조업체 핸드풀(Handful) 등이 최근 공장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
-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(BCG)이 200명의 미국 대형 제조업체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, '리쇼어링'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응답자의 21%가 이미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, 향후 2년 안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힘
 - 33%는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검토를 할 예정
- FT는 이러한 '리쇼어링' 현상은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더 이상 낮은 생산 비용을 제공하는 제조업의 중심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진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
- BCG는 '리쇼어링'이 본격적으로 현실화 되는 2020년께는 미국 제조업계에 60만~12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

2) 미국 의류산업 부활 조짐

- 지난 9월23일(현지시간) CNBC는 미국 의류산업이 그동안 뉴욕시 등 대도시에서만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 왔지만 최근 들어 중소도시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
 - CNBC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랠리, 인디애나주의 포트웨인 등 중소도시에서 의류 공장들이 급증, 규모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보다 작지만 열정은 대도시 못지않다고 설명

- CNBC는 미국의 의류업체들이 미국 공장의 높은 인건비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며, 일부 업체들은 미국산 의류의 품질로 승부하고 있다고 보도
-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지난 수년간 급상승한 것도 의류업체들의 미국 공장 가동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

3) 무디스, GM 신용등급 상향조정

- 지난 9월23일(현지시간)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제너럴모터스(GM)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수준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고 발표
- 무디스는 이날 GM의 신용등급을 'Ba1'에서 'Baa3'로 한 단계 상향 결정, 이로써 GM의 신용등급은 '정크'에서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승
- 그간 무디스는 GM의 경쟁력과 신용위험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음
- S&P와 피치는 아직 GM의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에 묶어뒀지만 두 회사 모두 최근 GM의 신용등급 전망을 '긍정적'으로 높이며 등급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바 있음
- 한편, 무디스의 이번 조치는 GM이 이날 전미자동차노조(UAW)의 퇴직자 건강보험기금(VEBA)이 보유한 우선주 1억2000만주를 주당 27달러에 되사기로 했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결정